



새마을금고 중구이사장협의회 장주흥 회장과 이사장들이 김길성 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구이사장협 차량 후원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에 1천800만원 상당의 기아차 ‘레이’

새마을금고 중구이사장협의회(회장 장주흥)는 지난 3월 26일 공감예수마을교회에서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박인희)에 기아차 ‘레이’를 후원에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차량 가격은 1천800만원으로 이사장협의회에서 500만원, 새마을금고중구실무책임자협의회에서 300만원, 10개 금고에서 1천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낡은

차로 밀반찬 배달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세탁 서비스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새 차량 후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노인복지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날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차량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새마을금고 중구이사장협의회는 중구 소재 10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장주흥 회장(평화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에서 500만원 상당의 쌀 기부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고, 각 금고에서는 사랑의 좀どり운동과 사회환원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금고 이사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연 대표기자〉

“숭고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민주평통 중구협, 북한이탈주민 3명과 함께 제2함대사령부 방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서울중구협의회(회장 이강운)는 3월 22일 조국 바다를 수호한 영웅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의 유가족, 참전장병, 정당대표, 정부 및 주요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이 함께 참석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참배를 진행한 후 55용사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매년 서해수호 55용사



3월 22일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의 희생, 헌신을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빛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을 정해 활용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선(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로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의 기본방침은 첫째,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으로 서해수호 55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둘째, 예우를 다하는

대한민국으로 유족 및 선장병들을 비롯한 현역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며, 셋째, 국민을 위한 강한 대한민국’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대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형연 대표기자〉

식목일 기념행사 광희초 나무심기

김길성 구청장, 김문숙 교장, 학부모·학생 대표와 황매화 기념 식수

김길성 중구청장은 푸른 중구를 꿈꾸는 식목일을 기념해 광희초등학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부모를 비롯해 원예전문가, 시민 정원사 여러분이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김문숙 광희초 교장, 학부모·학생 대표와 함께 기념 식수인 황매화도 심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며 봄을 알린다고 한다. 이러한 황매화의 꽃말은 ‘기다림’이라고 한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는 황매화처럼 광희초등학교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작은 새싹



김길성 중구청장이 광희초 학생들과 식목일 날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

에서 굵은 줄기가 쏙고, 가지를 뻗는 꽃과 나무처럼, 광희초등학교 학생들이 중구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가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당 기자〉

아이들과 장 담그며 하하호호 ‘동화장독대’

동화동 주민센터 옆 동화장독대 마당서 ‘장 담그기’체험

청구동은 4월 중 ‘장 담그기’예정

“매주에다 이렇게 소금물을 부으면 나중에 우리가 먹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볼래요~와 신기하다!”

지난 3월 27일 중구 동화동 주민센터 바로 옆 동화장독대 마당에서의 한 풍경이다. 장독 60개가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이곳에서 ‘장 담그기 체험’이 진행됐다.

총 94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특히 형형색색 앞치마를 두른 34명의 아이들이 웅기종기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생소한 경험에 당황할 법도 한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주에 소금물을 부으며 무사히 장 담그기 체험을 마쳤다.

장 담그기는 중구 동화동과 합

구동에서 진행되는 ‘동 특화사업’의 일환이다. ‘장 담그기(3~4월)-장 가르기(6월)-장 나누기(11월)’순서로 진행해 선조들이 1년 행사로 장을 담그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타 자치구 주민이 지원해 올 정도로 열띤 호응을 얻으며 4년째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다.

동 특화사업은 15개 동 주민들이 동 별 특성에 맞는 특목 튀는 아이디어를 담아 기획한 것이다. 특화사업을 들여다보면 각 동의 특색이 한눈에 드러나 흥미롭다. 주거지 밀집 지역인 청구동과 동화동은 ‘장 담그기’사업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의 장을 열고 함께 나누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동화동은 관내 3개소 어린이집 등 장독대를 분양한 60세대와 합

계 5월 22일엔 메주와 간장을 가르 는 ‘장 가르기’를, 연말에는 무르익은 된장과 간장을 꺼내는 ‘장 나누기’를 하게 된다. 텃밭 ‘동화농원’도 운영한다. 전통 장과 농작물 등 수확물의 일부는 취약계층과 나눠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

행사에 참여한 동화동 주민은 “동화동 장독대가 사시사철 별이 잘 드는 위치라 여기서 익힌 장은 특히 맛이 좋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편 청구동에선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4월 중 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한다. 동화동과 마찬가지로 텃밭 ‘농부학교’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테라리움 원예 교육을 제공해 주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렸다. 〈주현옥 편집국장〉

‘동네배움터 봄학기 프로그램’

다운동네배움터등 10곳서 진행

중구가 4~5월 ‘동네배움터 봄학기 프로그램’을 다운동네배움터 등 10곳에서 진행한다.

수강생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구민을 우선 선발하며 수강이 확정되면 개별 통보한다. 각 수업 별로 정해진 재료비만 내면 수업료는 무료다.

동네배움터는 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집 가까운 곳에 마련한 학습 공간이다. 구는 올해 총 11곳의 민간 동네배움터를 발굴해 2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5월에는 봄학기, 6~8월에는 여름학기, 9~10월에는 가을학기가 운영된다.

지난해 11월에는 평생학습 성과 나눔회를 개최해 동네배움터 10곳과 동아리 7곳에서 정성스럽게 제작한 공예품, 그림 등 작품 70여 점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